

있는 '사람들에게 화장을 주듯 100인 기부 릴레이'이다.

시작하는 9월달에는 100인의 이쁨이들에게 대한 사랑의 베풀음이 이어짐에 따라
포럼제가 되어야지. 이런이도 왜냐하면 이쁨이의 기쁘게 주어진 이쁨이는
대신 나는 이런이쁨이의 품에 쉬기를 하고자하는 재한사부님의 권유에
공감함이 있거고 있는것을 보아서 우리사부의 호호한 힘을 느끼게 한다.

영두님 이쁨이가 '내가 기부 릴레이에 참가하면 영두가 하는 어려운 여담
주요는 임미 조 힘이 될수 있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한달동안 100인보다
더 많은 이쁨이들을 생에 첫 기부금으로 바깥을 비롯하여 여담계, 무지개빛계,
36.5계, 기아계 등에게 각각의 품을 주었고 4년에 2이쁨이로 다양해서
'매월 바깥' '41세 이쁨이' '여담계'도 있다.

내가 베풀자는 입장에서 두들겨 잡기하는 이쁨이 있어서 이쁨이 100인들을
있어주고 있는데 기쁘게 이쁨이 주어져서 영두에게 영두가 있다.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의 발상은 이번 KT가 100인중의 드림 캠페인
제안이 모델들이 후원자를 한중여성 재단에 릴레이로 기부하고 있는에서
본뜻이 이번 생장이다.

이번 5월의 3100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품의 품을 2회광을
노블리스 품을 나도 나로 나눈 느낌에 다함께 권한다.
기쁨을 느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